

그분 자신의 대표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전 2:5)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자들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복음 13:33)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36,37)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뻐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과 주님, 그들의 사랑스런 선생님과 친구요, 그들의 삶 그 자체보다 더 귀중한 분이였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분께로부터 위안을 얻었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하는 그들을 막 떠나려고 하고 있다……. 어둡고 불길한 전조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1~4)

도마가 질문하였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한복음 14:5)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른 분을 보내신다는 것인가?

또 다른 위로자(보혜사)가 그들과 영원히 거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이 제자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이 보혜사를 전에 알았는가? 그분이 그들과 거하셨던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표현하지 않은 이 질문을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그들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라면, 왜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보혜사)라고 하시는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보혜사”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제자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 자신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혼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거나 자신을 모순되게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아는 고로, 그분이 다른 모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다른”이 꼭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실례가 있다.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리라.” (삼상 10:6)

위에 성경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와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후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실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은 다른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으시고, 다른 위로자(보혜사)로, 영-으-로-써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요14:16,17)

신성의 영으로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연합되었다. 또 그와 같은 영으로써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밀접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14:20,21) [요한 14:10,11, 17:21-23]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22~24)

명백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친밀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그분은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으로써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14)

다시 오시는 위로자(보혜사)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25)

제자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아직도 그러한 감화력이 그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분의 많은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

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함을 보였다. 그분은 성령이 이러한 말씀들을 줄 것이라고 자비롭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은 채 남겨 두셨다. 그리하여 이런 감추어진 진리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었다.

그가 보혜사(위로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간혹 그분은 문법적으로 제 1 인칭인, 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주로 제 3인칭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지난 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두 여행자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눅 24:25,2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 3 인칭으로 나타내셨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많은 경우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하셨다. -마 25:31, 막 8:31, 눅9:22, 요한3:14- 즉 제 3인칭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안다.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제 3 인칭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다. 제 3 인칭을 대표적인 실례인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3,5)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국가는, 이 “고난의 종”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믿으려 하였지만, 모든 절들을 통해 볼 때에 부적당한 관점으로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많은 귀한 영혼들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3 인칭을 사용하여 말씀하실 때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는 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언은 기호(암호)를 풀어야한다. 어떤 예언은 한 가지보다 더 많은 성취가 있고, 또 다른 예언은 두 가지가 섞여있다. 어떤 때는 상징들은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기도로 찾아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리라는 약속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낱낱이 살펴보자.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요 14:2)
2. 그분께서 아버지에게 위로자를 보내도록 청하실 것임. (요 14:16)
3. 그것은 또 “다른” 위로자가 될 것임. (16 절)
4. 이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다. (요 14:6, 17)
5. 세상은 위로자를 영접지 못함. (17 절)
6.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17 절)
7. 제자들은 위로자를 앎. (17 절)
8. 위로자가 그들과 거하고 계심. (17 절)
9. 후에는 위로자가 그들 안에 거할 것임. (17 절)
10. 제자들이 그들 홀로 버림 받지 않을 것임. (18 절)
11.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임. (18 절)**
12.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임. (21 절)
13.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실 것임. (23 절)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후6:16)

위에 말씀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결론은, 그분께서 육으로 제자들과 거하실 때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그분께서 영으로 돌아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한 14:28)**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데 기뻐해야 할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계자로 성령(원문: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원문: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69 영문}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위안을 주는 그분의 임재를 필요함을 알고 계셨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였다. 오직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만 그 약속의 의미가 밝혀질 것을 그분만이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분께서 영으로 오심으로 그들 각자와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광 받은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동시에, 그분은 이 지구에서 그분의 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16:8,12,13)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우리는 성령의 본질이나, 그리스도께서 다른 두 장소에서 어떻게 동시에 육과 영으로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명백히 나타난 것들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과 동등한 다른 존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분 자신의 영으로써 오신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는 그분 자신이다.